독립운동가 김원봉 vs 첩보요원 김원봉

〈KBS〉 〈MBC〉

KBS, 3년만에 대하드라마 부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주인공
MBC, '이몽' 통해 김원봉 다뤄
SBS '황후의 품격' 구한말 배경


약산 김원봉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한국 근대사를 비춰보는 드라마가 잇달아 제작되고 있다. 100년 전 험난한 격동기에 벌어진 사건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데 극적으로 다가온다. 시기적으로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99주년인 올해에 구한말 의병 이야기를 다룬 tvN '미스터 션샤인'이 스타트를 끊고 인기리에 방송 중이다.

KBS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하드라마를 부활시킨다. '장영실' 이후 3년 만이다. 주인공으로는 독립운동가인 약산 김원봉을 내세운다. 김원봉은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 등을 조직해 항일무장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하지만, 월북 행정과 종파 다툼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영화 '암살'(2015)과 '밀정'(2016)에서 각각 조승우와 이병헌이 김원봉을 연기하며 재조명받는 기회가 됐다. KBS는 내년 광복절 전후로 첫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S에 앞서 MBC도 내년 5월 방송 예정인 '이몽'을 통해 김원봉의 이야기를 다룬다.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경성과 만주, 중국 상해를 배경으로 김원봉(유지태)이 상하이임시정부 첩보요원이 되어 일본인에게 키워진 조선인 외과의사(이요원)와 활약하는 내용이다. 10월부터 본격적 촬영에 돌입한다.

제작사 측은 "100주년 기념 드라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진정성 있는 의미와 재미, 진한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인물을 두 방송사가 동시에 다룸으로써 시청자는 두 작품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얻게 될 전망이다. KBS는 대하드라마의 정통성으로 김원봉 이야기에 접근하고, MBC '이몽'은 중국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 항저우 쟈핑픽쳐스 유한공사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로 블록버스터급 영상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를 기대하게 한다.

임시정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한말을 배경으로 판타지 요소가 섞인 드라마도 방송을 앞두고 있다. 11월 방영하는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2018년에도 구한말의 입헌군주제가 계속되어왔다는 설정으로, 황제에게 시집온 걸크러시 매력의 뮤지컬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싸우는 등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김순옥 작가의 독특한 발상이 드러나는 2018년의 구한말 배경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높다.

제작을 계획중인 '조화오미'는 요리를 매개로 현재와 구한말을 오가는 타임슬립 장르이다. 대한제국 황실 요리사인 남성이 한 사건에 휘말려 죽기 직전 2018년으로 이동해 호텔 한식당의 여성 셰프와 벌이는 이야기이다. 100년 이상의 시공간을 초월한 남녀의 로맨스, 요리사로서 대결, 당시의 음식들이 화면을 채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미스터 션샤인'으로 인해 드라마 속 시대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청자 반응을 드라마로 드러내는 것도 이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조진웅

정진영 감독 데뷔작 후배 조진웅이 주연

영화 '클로스 투 유'서 협업
오랜 준비 끝에 10월에 "큐"

본지 단독

배우 조진웅이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의 주연으로 나선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선후배 연기자가 각각 주연배우와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작품을 합작한다.

조진웅은 배우 정진영의 연출 데뷔작인 영화 '클로스 투 유'(close to you·가제)의 주인공을 맡는다. 최근 '독전'과 '공작'의 흥행을 이끌면서 몸값을 높인 조진웅은 분주한 작품 활동 가운데 선배 정진영과의 새로운 협업에 돌입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대장 김창수'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이기도 하다.

'클로스 투 유'는 사건 수사를 위해 한 시골학교를 찾아간 주인공이 그곳에서 일하는 교사 부부를 만나 겪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룬다. 시나리오를 쓴 정진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화 연출에 대해 의지를 보였고, 오랜 준비 끝에 10월 촬영을 앞두고 있다.

영화에는 조진웅을 비롯해 배수빈과 차수연, 정해균도 참여한다. 저마다 개성이 확실한 이들 배우는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정체불명의 일에 얽힌 인물들을 그릴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번 작품을 통해 인생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촬영은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화 제작은 '범죄도시'를 만든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다니필름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해리 기자

연예현장.jpg 이번엔 아이즈원이다!


아이오아이, 워너원에 이어 이번엔 아이즈원(IZONE)이다. 엠넷의 글로벌 아이돌 육성프로젝트 '프로듀스 48'이 8월31일 파이널 생방송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그룹을 탄생시켰다. 이날 방송에서 20명이 최종 후보에 올라 시청자 투표를 통해 데뷔 멤버 12명이 선발됐다. 장원영이 33만836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미야와키 사쿠라가 31만6105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이 3~12위에 올랐다. 사진은 '프로듀스 48'에 참여했던 모든 연습생들이 '내꺼야' 무대를 함께 꾸민 모습. 사진제공 | CJ ENM

입소문 탄 '서치' 신바람난 역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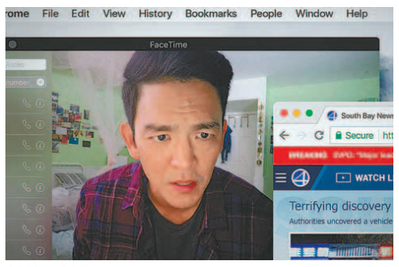
한국계 미국인 가정서 사라진 딸
공유플랫폼·SNS 등 기발한 추적
예매율 3위에서 5일만에 1위 반등

무엇을 상상하든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그 이상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향연이라 할만한 영화 '서치'가 거센 입소문 속에 박스오피스 순위도, 예매율도 역주행을 이루고 있다. 8월29일 개봉 첫날 3위로 출발했지만 상영 나흘 만에 2위로 도약했고, 닷새째인 2일에는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박스오피스 1위도 시간문제다.

'서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다. 부재중전화 3통을 남기고 감쪽같이 사라진 딸, 그런 딸을 찾으려고 온라인에서 흔적을 뒤좇는 아빠가 벌이는 추적극이다.

익숙한 구조의 스토리라고 판단하면 오산. 노트북 카메라와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 페이스타임 전화통화를 비롯해 온갖 SNS 검색 화면으로 1시간41분을 채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현존하는 실시간 공유 플랫폼과 SNS를 총망라해 벌이는 추적극은 기발함을 넘어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영화 '서치'

덕분에 '서치'는 1020세대의 취향 저격을 넘어 3040세대 시선까지 사로잡았다. 온라인에서도 호평 일색이다. 포털사이트 관람객 평점은 9.19(네이버·2일기준), CGV 관람객 에그지수는 98%에 이른다. 근래 개봉작 가운데 단연 높은 수치다.

당초 6분 분량의 단편으로 기획된 '서치'는 신인감독의 패기 넘치는 아이디어를 확인한 영화사의 제안으로 장편으로 완성됐다. 이를 알아본 건 관객이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서 관객상을 받은 직후 소니픽쳐스가 전 세계 배급권을 확보하면서 국내서도 개봉하게 됐다.

'서치'는 한국계 미국인 가정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내 관객의 몰입도를 더욱 높인다. 사건 수사관과 딸의 학교 친구들로 짧게 등장하는 몇몇을 제외하면 주요 인물은 전부 한국계 배우가 맡았다.

특히 아빠 역의 존 조는 '스타트랙' 리부트 시리즈로 미국에선 팬덤을 가졌음에도 국내서는 인지도가 낮았지만 '서치'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6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사실까지 새삼 화제다. 아니쉬 차간티 감독은 "기획부터 존 조와의 작업을 원했기에 배경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설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여심 사로잡은 '여사친' 김민정

'미스터 션샤인'서 대장부 캐릭터
의리·모성애에 섹시함까지 어필


김민정

연기자 김민정이 '여사친'(여자사람친구)의 매력으로 여성시청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다.

김민정은 현재 방송중인 tvN '미스터 션샤인'에서 불온전한 시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을 만큼 불운한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대장부 같은 캐릭터 설정을 훌륭하게 표현해 여성팬까지 아우르는 모습이다.

김민정이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순종적인 인물을 주로 맡았던 까닭에 이번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신선하게 여겨진다.

김민정은 극중 구동매(유연석)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일한 친구로 등장하며 성을 초월한 의리를 보여준다. 그의 대범함과 의연함은 때로는 모성애마저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여자주인공인 김태리가 사랑 앞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민정이 연기하는 쿠도 히나의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김민정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물오른 미모로도 주목받고 있다. 구한말 시대에 여성 혼자서 호텔을 운영하는 강단 있는 행동과 화려한 스타일링으로 섹시한 매력까지 드러내는 등 그야말로 '김민정의 재발견'을 만들어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해시태그 컷



테니스 꿈나무 아이유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가 테니스 배우기에 한창이다. 아이유는 "공을 잘 주워야 실력이 는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이유는 검정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채 테니스공을 바구니에 열심히 담고 있다. 사진이 흔들릴 정도로 빠른 손동작으로 공을 주워 웃음을 준다. 팬들은 "테니스 꿈나무다"라며 기대의 반응을 보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아이유 #테니스꿈나무 #공줍기집중

편집 | 안도영·김청조 기자